

“한국을 세계 3위 IT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대통령 후보의 IT정책 비전과 공약을 듣기 위한 '2002 대선 후보 초청 IT 정책 포럼'의 두 번째 시간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였다. 이날 포럼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회창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 패널 5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연세대 김동재 교수의 진행으로 협회 장흥순 회장, 한국CIO포럼 오해진 회장, 인터넷기업회 이금용 고문, 전자신문 현덕진 국장, 아이뉴스24 이재권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5대 비전과 7대 전략

이 후보는 'IT 코리아'를 위한 5대 비전과 7대 전략을 통해 IT와 벤처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가 지향하는 IT 코리아는 세계 일류의 IT 제품을 만들어 내는 나라, IT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나라”라며 “현재 세계 7위 수준의 우리나라 IT 수준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IT 코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산업 ▲ IT접목으로 재도약하는 전통산업 ▲ IT산업이 개인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 정보화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복지사회 ▲ 생산적이고 투명한 부패 없는 전자정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IT투자 활성화와 IT 기반신산업 육성 ▲ IT 핵심·원천기술 개발 가속화 ▲ 창의력 있는 세계 일류 IT 인력 양성 ▲ 통신서비스 시장의공정경쟁질서 확립 ▲ 정보화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 ▲ e라이프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반듯한 정보사회의 정착 등 7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IT 산업 재도약 위해 투자

이 후보는 “당선되면 IT 투자를 활성화하고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 등 IT 기반 신산업을 육성해 IT 산업을 재도약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조기 정착,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중 육성, 무선통신 및 기업정보화 투자 활성화 등을 들었다.

또 IT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IT분야 연구개발(R&D) 분담률을 2008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벤처산업 육성과 정보화 추진체계 개선

이 후보는 침체된 벤처산업을 키우기 위해 “직접 지원은 줄이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벤처산업의 기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등록심사를 투명하게 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해 불건전한 벤처기업은 시장에서 받을 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하며 나머지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정보화 추진도 일관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줄이는 등 질적인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후보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